지역 메아리

부안군-전국공무직노동조합 2019년 임단협 상견례 개최

부안군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은 28일 2019년 공무직 노사 임금·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는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인 김남철 군 자치행정담당관과 이권로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공무직노동조합에서 제출한 2019년 단체교섭 요구안은 본문 105개조, 부칙 8개조로 구성됐으며 조합활동 보장, 노동조건 개선, 후생복지, 남·녀평등, 단체교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은 향후 실무교섭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양측 입장을 좁혀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김장철 맑은 물 공급 상수도시설물 저수조 청소 실시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12개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청소작업을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저수조 청소작업은 수도법과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되며 부안군은 청결한 시설물과 배수지 관리로 안심하고 마시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적기에 청소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수지 내부 청소 및 주변 소독작업으로 주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며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만족도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소작업 일정에 맞춰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정도를 파악해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수작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가압장·배수지 위생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저수조를 교대로 청소하고 단수 없이 맑은 물 공급이 이뤄지도록 24시간 상수도 공급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군민들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저수조의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토탈체험형 인프라 구축

정읍시, 레저 · 힐링이 함께하는 '내장산 주변 토탈랜드 주요 추진사업 보고회' 개최

정읍시가 가을 관광으로 집중된 내장산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내장산 주변 토탈랜드 조성에 나섰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내장산 주변 토탈랜드 주요 추진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내장호와 용산호 주변에서 추진중인 주요 관광 개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 자리에는 유진섭 시장과 임민영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실·과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장전략실·관광과·환경과 등 총 7개 과에서 추진중인 월영습지와 솔티숲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등 9건과 새롭게 구상하는 용산호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8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사업추진 부서 간 협조·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시가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내장산 주변 토탈랜드 주요 추진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유진섭 시장은 "우리 시의 특색을 나타내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확보해달라"며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내장산 문화광장과 용산호 주변 리조트를 중심으로 레저와 힐링이 함께하는 토탈체험형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반도 첫수도의 대표 상차림 나왔다

고창 농특산물 활용한 메뉴 개발

알록달록 고창오색오리솥밥을 메인으로, 보리새싹 가루로 곱게 색을 내어 바지락을 올려 구운 바지락보리새싹전, 계속 손이가는 구수한 맛이 일품인 보리새싹묵, 상큼한 맛의 바지락초무침, 고창 앞바다에서 잡은 풀치(갈치의 새끼)와 고창 땅콩을 넣은 풀치땅콩볶음, 여기에 달달한 식혜까지 곁들어 지면 임금님 밥상이 따로 없다.

농생명 식품도시 고창을 대표하는 상차림과 각종 로컬 식재료가 사용된 반찬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석정 홀론아트홀에서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활용한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밥상 추진상황 보고회'를 겸한 '대표 메뉴 시연회'가 열렸다.

고창 밥상에선 보리의 고장에 걸맞게 지역 대표 농산물 보리를 활용해 다양한 음식을 선보였다.

또 풍천장어, 바지락, 한우 등 지역 대표 특산물을 활용해 만든 맛깔나는 반찬들의 시식 코너에도 사람들이 몰렸다.

대표 메뉴 시연회 행사는 밥상 사업의 일련의 과정 보고와 사업참여 업체 소감 발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18개 외식업체들이 직접 만든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밥상 메뉴 소개로 진행됐다.

앞서 외식업체들은 지난 7월부터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고창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국물 맛내기, 소스 개발, 응용가능한 핵심레시피 교육 등 고창만의 특색있는 메뉴를 만들기 위해 이론과 실습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군은 이번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완성도 높은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밥상을 개발해 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전해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많은 분들이 직접 와서 맛 보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고창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통해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춰 농생명식품산업도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농기센터, 샘골녹향제 성료… 자생차 중점 홍보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명원문화재단(사)샘골다례가 주관한 '제15회 샘골녹향제'가 지난 26과 27일 내장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학혁명 영령들을 위로하는 헌공다례(獻供茶禮)로 충효 정신을 높이는 동시에 단풍철을 맞아 내장산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차 문화를 홍보했다.

정읍 자생차(茶)의 역사와 효능, 차를 이용한 다도 예절 배우기 등 차에 대한 기본 소양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또, 다례 시연과 녹차, 발효차, 구절초 차 등 다양한 차 무료시음회를 통해 정읍 자생차를 홍보하며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샘골다례(원장 정정옥)는 매년 내장사 정혜루에서 차 봉사와 평생학습센터, 태산선비문화관 등에서 다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차 문화 보급과 차 소비 촉진 등 정읍 자생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다.

센터 관계자는 "정읍 자생차의 브랜드 향상을 위해 자생차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차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읍 자생차(茶) 홍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배 '전국 우리 배 한마당 큰잔치' 최우수상 수상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6회 전국 우리 배 한마당 큰잔치'에서 정읍배연구회 박건중 회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가 주관하고 우리한국배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국 배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최대 배 축제다.

이날 행사에서는 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육성 품종 우수성 홍보와 우리 배 소비 확대를 위한 시식 행사, 우리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또, 사전에 24개 주요생산 시·군의 배를 출품받아 식미와 당도, 외관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한 생산자를 격려하는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상식에서 정읍배연구회 박건중 회장이 '추황'품종으로 농촌진흥청장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건중 회장은 30여 명의 회원과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고품질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생산량의 70% 이상을 대만과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지역 수출 유망단지 집중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박건중 회장은 "이번 수상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 정읍 배 연구회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도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받은 우리 배가 소비자에게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이 식초문화도시로 발돋움한다.

자연이 준 기적의 물

고창군, 내달 '식초문화도시 선포식' 개최

'한반도 첫수도',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이 식초문화도시로 발돋움한다. 전북 고창군은 오는 11월 1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한반도 첫수도 고창, 천년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식초문화도시 선포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왜 식초인가=식초는 '인류 최초 조미료'로 잘 알려져 있다. 먼 옛날 냉장기술이 없던 시절, 먹다 남은 술이 발효되면서 탄생했다. 과일이나 곡류를 발효시키면 술이 되는 데 그 술을 더 숙성시키면 식초가 된다.

발효식초에는 몸에 좋은 유기산들이 함유돼 있다. 이 다양한 유기산은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비타민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가 체내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다. 발효식초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천연 피로 해소제 기능도 한다.

▲고창이 식초에 주목하는 이유=고창군은 식초의 원료가 되는 쌀과 보리를 비롯해 국내 베리류(복분자, 아로니아 등)의 최대 생산지로 정평이 나있다. 또 게르마늄 함유량이 높은 온천수 등이 발효수로 활용되면서 명품식초가 탄생할 수 있다.

여기에 인적자원도 풍부하다. 복분자주와 막걸리로 대표되는 발효주, 식초분야 최고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 농가는 물론, 귀농인, 퇴직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식초연구회에 모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월 1일 선포식에는 초항아리에 고창 대표 농산물(보리, 복분자, 고구마 등)과 게르마늄 온천수를 활용해 식초를 담그는 과정이 퍼포먼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의 자연과 먹거리에 문화와 전통, 가치를 담아 국내 식초산업을 이끌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세계화를 위한 천년대계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